# 네티즌들에게 드리는 인사

안녕하세요 노무현입니다.

유난히 춥고 눈이 많았던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풍년이 든다'는 옛말처럼,
올해에는 우리 국민들 모두의 삶이 보다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임무중의 하나는 국민들의 가슴에 희망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일찍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온 국민이 대공황의 고통을 겪던 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갖자"고 이야기합니다.
금모으기 정신으로 IMF위기를 극복해낸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힘겨울지 몰라도 그러한 정신과 열정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정치의 과제야말로 그분들의 가슴에 희망을 되돌려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며칠 전, 해양수산부장관직에서 물러나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으로 활동중입니다.
보다 새로운 마음으로, 장관시절의 경험을 살려 국민의 아픔을 알고 치유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슴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보다 나은 우리 사회, 다시 일어서는 경제, 생산적인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